II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01 나의 권리다 일자
02 우리 함께 살아요
03 인권을 위한 투쟁

깨어나, 일어나
- 브ób 말리(Bob Marley)

사람들은 하늘에서 위대한 신이 내려와
이 모든 고통을 멀추게 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자.
하지만 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볼래.
그럼에 바로 이 당위에서 너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지야.
자 이제 빛이 보이다?

깨어나, 당당히 일어나.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자.
깨어나, 일어나.
싸움을 포기해선 안되!
(1) 소중한 나, 너, 우리

- '인권'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생각하는 대로 아래 말풍선에 적어 넣어 볼시다.

나는 차별 받거나 억압
여정을 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남과 비교되는 게 싫어. 사람으로
서 존중받고 싶어.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겠지?

모든 사람들
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현실
은 불공평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커.
나는 이런 걸 바꾸고 싶지만 어
디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선언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의 가치가 있고 있다.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 1948년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문서의 헌장에서

인류 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서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한다.

- 1966년 유엔에서 제정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문서의 헌장에서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누구나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무시되거나 경멸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의 존엄성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핵심이다.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동연하려 갖는 권리'이며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다. 사람다운 삶이란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내가는 삶이다. 모든 사람은 인권을 통해 자신의 인격,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선언(declaration)' 이란 정부를 별도로 담화하는 자들이 주어진 목적과 목표와 원칙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문서이다. 선언의 내용은도덕적 의무를 구성할 뿐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은 영어로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라고 한다.
그러면 인권이 지난 일반적인 성격을 몇 가지 살펴 보자.

인권의 상호의존성

“모든 인권 운동이 추구하는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두 개의 날말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존중'이라는 날말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의 시간과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이라는 날말입니다. 나의 권리를 제기는 일과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일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또 하나 '더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인디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속담 가운데 "한 사람의 상처는 곧 모든 사람의 상처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본적인 존엄성을 회복할 때까지는 그 누구의 삶도 완전히 존엄할 수는 없으니까요."

-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국제인권법을 발전시키고 많은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국제인권법을 널리 교육시키는 일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주의적이거나 배타적이고 고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즉, 우리는 자신의 인권을 요구하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나에게 소중한 인권은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것이다. 이런 인권의 성격을 우리는 ‘인권의 상호의존성’이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침해하면 개인을 폄량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에 갈등과 폭력이 심하게 한다.

인권의 보편성

“저는 백인 지배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저는 흑인 지배에 대항해서도 싸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조화 속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리며 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라는 이상을 간직해 왔습니다. 저는 이 이상을 위해 살고 이것을 이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저는 그 이상을 위해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네스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

네스 만델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스 만델라의 주장대로 사람은 인종과 외부색에 상관없이 평등하며 존엄하다. 문제는 사람들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사람들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 한편 많은 차이점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인종, 외부색, 성별, 국적, 언어, 재산, 장애, 종교, 정치적 사상 등이 다르다. 이런 차이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뿐 누구에게는 특권을 주고 누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인권의 성격을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이라 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종차별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거의 300년 동안 소수의 백인들이 흑인을 지배했는데, 1948년 정권당이 ‘아프리카 하이트’라는 강제 인종분류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호한 차별에 맞서 이하리아에피트에피트 철법운동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 갔다. 이 운동이 점차 국제적인 힘을 얻게 되고 결국 아프리카에피트는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율은 모든 인류의 타고난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은 정부의 일차적 책임이다.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체제를 떠나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율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선언문 중에서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의 '정치'는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즉 국가 권력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쓰여야 하고, 권력자 자신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권력은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힘을 적절히 쓰고 실어할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부가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잠재가 필요하다. 그 잠재는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려 하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할 때 그 권력은 옳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은 인권을 억압하는 부당한 권력에는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국가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나의 씨앗

1 다음의 네 장의 그림을 그리고 보자.

1 번째 그림
'나'라는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맺는 열매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서 그리고 보자.

2 번째 그림
'나'라는 씨앗은 어린이에게 살아야 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는 씨앗을 이 세상의 어느 곳, 어떤 환경 속에 심을지 상상해서 그리고 보자.

3 번째 그림
'나'라는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이 열매를 누가 이용했을까? 누군가에게 이것을 누가 쓰여지게 하고 싶었을까? 내가 맺은 열매가 쓰여지는 광경을 상상해 그리고 보자.

4 번째 그림
'나'라는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이 열매를 누가 이용했을까? 누군가에게 이것을 누가 쓰여지게 하고 싶었을까? 내가 맺은 열매가 쓰여지는 광경을 상상해 그리고 보자.

2 네 장의 그림이 완성됐으면 '나'의 씨앗에 대해 설명해 보자.

3 다른 친구들의 씨앗에 대해서도 잘 들어 보자.
(2)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앞에서 우리는 나, 너,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찾아야 하는 인간의 권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어떤 것이 있을까?

아래의 인간 실루엣에 '인권'을 입혀서 사람다운 모양으로 완성해보자. 예를 들어 머리를 그려면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라 쓰고, 신발을 그려면 '이동할 권리'라고 써넣는다.
인권의 내용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

인권의 역사로는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했던 인류의 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과정이자,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려는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권리가 인정되었을 뿐,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은 인정받지 못했어,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제도는 영국에서 출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215년의 '대한장(Magna Carta Liberatatum)'이었어. 대한장은 성문법에 의해 왕권을 규제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 이전에는 왕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의 권리였으나 대한장 이후,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입헌주의적 전통이 세워졌어. 그러나 내용의 대부분은 특별한 권력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었고, 모든 인간의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어.

그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리의 개념은 언제 등장하게 되었나요?

17, 18세기에는 이르러서야 자연법 사상, 천부인권사상. 또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이 존재한다는 관념이 싹트기 시작했고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이 명백하게 주장되기 시작했지. 근대시민혁명은 인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 대표적인 근대시민혁명은 미국의 독립혁명(1776년)과 프랑스혁명(1789년)을 들 수 있어. 이 두 혁명은 '인권은 목적이고 권력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과 '인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되었지. 근대 시민 혁명은 특히 재산권과 생명권, 자유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허블로 배합기지 않고 계약을 맺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게 되었지. 그때까지 국민은 허블로 다わけで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권이 생겨난지야.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거나 해서는 안될 일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정치적 권리'라고도 해. 소위 인간의 기본권이라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온 자유와 권리들이 그 중심 내용이야. 이 내용은 세계 인권선언 제2조에서부터 제21조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음에는 어떤 권리들이 생겨났나요?

근대시민혁명은 '모든 인간의 인권'을 선언하며 인권의 창설한 아침을 열었지만, 지배 계급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고치려 들지 않았다. 그 결과 노동자에게만 선거권도 주어지지 않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어린 아이들의 노동 등 사회적 약자의 현실은 급격히 향상되었다. '자유'를 내지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해루 해루를 먹고사는 일이 험들었기 때문이다. 자유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평등한 분배가 필요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포함한 '평등'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 요구로 인해 인권에 동정한 권리를 사회권 또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라고 하자. 사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배의 정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세계인권선언의 제22조에서 27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권의 내용은 20세기 들어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어. 개인의 가치를 넘어서서 평화, 환경, 가치, 문화와 종교적 동일성의 보존, 건강한 경제 발전 등이 인권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어. 최근의 정보통신 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

세계인권선언(1948)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쟁이야말로 인간의 인권을 가장 치명하게 짓밟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유엔은 '국제평화유지'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을 목적으로 내결정 되었다. 그리고 그 첫 작업으로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공통의 인권기준을 확립한 것이어서, 나와 있는 세계인권선언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아파요, 슬퍼요... 세계 친구들의 목소리

다음 글의 주인공들이 찾아왔고, 곧 누려야만 하는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고 세계인권선언에서 찾아보자.

1. 알리
2. 심타
3. 고피
4. 알베르토

난 아프가니스탄의 양치기 소년 알리이야.

15살인 나는 어느 날 들판에서 대인지뢰를 밟았어. 지뢰가 폭발하면서 오른쪽 다리와 눈을 잃었지. 저긴 전투지대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농사짓는 땅이었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뢰가 들키지 않기 때문에 당한 일이지. 어른들도 물론 지뢰에 희생되지만 지뢰 희생자의 30% 이상이 나와 같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작은 체구를 폭발을 견딜 수 없어 대부분이 목숨을 잃게 되어. 살아 남는다 해도 나처럼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기요. 전세계에서 매달 2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인지뢰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해요.

* 대인지뢰

대인지뢰는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접촉하면 폭발하게 되어있는 지뢰로 국제적심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140개국에 모두 1억 1천만개 이상의 대인지뢰가 설치되어 있어 매 2천명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다. 국제대인지뢰운동(CBL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은 1991년 결성되었다.

난 네팔의 시탄이에요.

나이는 12살이고 도시에서 가정부로 일해요. 일한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엄마가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어린 우리들을 낳겨 놓고 집을 나가셨어요. 난 아빠가 살아계신지 어디에 계신지 전혀 몰라요.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해서 언제나 먹을 것도 충분치 않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큰 오빠가 나를 이곳에 데리와서 일하게 했어요. 난 내 일급이 얼마인지 몰라요. 오빠가 매달 와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받아 가겨도. 주인이 아주머니는 아주 무서워요. 내가 한 일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자주 날 데려요.
나의 고향

목발을 짓고 있는 것 뿐이고는 10대인 다른 여자들을 복잡하게, 일어날 때 혼들난 날 절을 수가 없었어. 난 두 살 때 소아 마비에 걸려서 아주 오랫동안 아팠어. 부모님은 내가 죽을까봐 걱정하던지만 나는 살아남아. 하지만 날 절을 수가 없었어. 부모님은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의 둘 돈을 모두 내 치료에 쓰려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친척들은 '누가 제 아이방 결혼하겠니?'라며 나에 대해 걱정을 했어. 나는 정말 빚들었어. 학교에도 갈 수 없었고 다른 아이들과 놀 수도 없었어. 아이들은 나를 무시하고 놀려댔어. 나는 길게 앉아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어. 친구가 없었겠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한 인권 단체가 우리 마을에 와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와, 그들은 날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갔고 수술을 했다. 도리어 나는 비록 목발을 짓어도 하지만 절을 수 있게 됐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제때에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 받기만 하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거야. 세상에! 백신 같은 사이다 한 병값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엄마는 세 살 난 동생에게 당장 예방 접종을 시켰어. 나는 내 동생이 나와 같은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지 않으리라 한 것 때문에 행복해. 이제 나는 학교에 다녀. 우리 오빠가 매일 아침에 데려다 줬. 다른 아이들이 놀담을 해대는데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나에게 잔다음을 표시하는 놀담이야. 나는 자따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리고 모두에게 말할 거야. 아이들에게 제가 매일 예방 접종을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지 말야.

난 17살인 알베르토.

나는 17살 때부터 콜롬비아의 보고타라는 도시의 거리에서 살기 시작했어.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를 먹여 살릴 수 없었어. 그래서 가출해서 하수구에서 살게 된 거지. 난 3년 동안 거리에서 살면서 난 가난이 무엇인지 다 알아버렸어.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잔인한 면도 다 봤구. 사람들은 나같은 거리의 아이들을 싫어 했어. 밤에는 술취한 탱자기사 아저씨가 우리에게 막 화를 내며 소리 를 질리대고, 경찰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아이를 죽여버리는 일도 있었고, 경찰관들이 자주 찾아라. 우리가 돈을 구청하기 때문인데,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 다시 꾸어날 수 있을까 두려웠어.

난 이 도시의 밤이 얼마나 폭력적이지 잘 알고 있거든. 밤이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노숙자, 몸을 과부 여성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디. 매일 누군가가 걸어서 죽어 가기도 했구. 난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모든 걸 알아 버린 것 같아. 열 삶이 됐을 때, '안테나 어린이 기금'이란 단체가 길거리에 있던 날 발견했어. 그들은 난 매일 가지고 가서 잠자리도 주고 공부도 시켜 주었어. 난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마치고 나면 대학에도 가고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고 싶어. 남동생이 셋 있는데,
동생들마저 나처럼 거리에서 살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나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하지만 거리의 아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일해 보고 싶어.

* 안데스의 어린이 기금
영국에 있는 자선단체로 위기에 처한 콜롬비아 아이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한다. 콜롬비아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운영하거나 열대우림지역 아이들을 위한 의료관 파견을 후원하기도 한다.

다시 해보기

- 여러분이 앞으로 해본 인간 실루엣에 새롭게 알게된 권리와 세계인권 선언에 있는 권리를 더 쌓아 인권의 옷을 입혀보자.
우리 함께 살아요.

(1) 차별은 싫어요.

- '년 나와 달라', '년 우리와 달라'하는 식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구별짓고 그 사람들을 향해 부정적인 의미의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 우리 사회에서 0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과 행동을 찾아서 표현해 보자. (0에 들어가는 사람: 이주노동자, 혼혈아, 장애인, 동성애자, 여성 등)
다음에 있는 세 사람의 그룹을 잡고 차이와 차별에 대해 생각해보자.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름은 마야 May아)고 14살이다. 나는 아주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이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 난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
와 언니들을 도와서 집안 일을 해야 했어. 마루를 닦고, 빨래를
하고, 물 깨끗이 나무하고... 친구들은 밖에서 노는데 나는 그런
수가 없었어. 학교에 갈 수 있게 했을 때, 난 너무 좋았어. 학교
에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읽고 쓰기를 배울 수 있었어. 그런
데 내가 4학년이 됐을 때 부모님은 학교를 그만두게 했어. 아빠는 수
업료를 낼 돈이 없다고 했어. 또 집에서 엄마 일을 도와야 한 다구 하셨어. 만약 내가 아들
이었다면 부모님이 학교를 출업하게 했을 텐데. 큰아버지 학교를 다녀서 지금은 도시로 나
가 회사에 다녀. 두 남동생도 학교에 다니고 있고, 동생들은 아마 곧 출업할 거야. 나는 집
이나 늦까지 해주기 줄이면 계속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겠지. 난
엄마가 세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만 봤어. 내 살도 엄마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 UN cyberschoolbus에 실린 글 -

어우러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저는 일자리를 찾아 열고 면 한국까지 가장 있는 오로 인입니다.
저는 다른 친구와 같이 임직원에 있는 한 회사에서 일년 가
까이 일했습니다. 무척 힘들었지만 한푼 두푼 모는 재
미에 일 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는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이 한 명 있
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 간다는
것을 무척 싫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별다른 내
색 없이 어울려보고 노력할 했습니다. 어느날, 지녀
10시가 넘었는데 누가 기숙사 문을 꺼내 두들겼습니다.
나가 보니 그 사람이던군요. 술에 취해서 남리를 치다가 급
가야는 부엌으로 난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별개
가지고 우리 역할을 채고 혼들며 마구 때렸습니다. 맛볼어 쌈우다가 해결이 안 날 것 같아서 사장님댁으로 뛰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기숙사에 와셔야 그 사람은 난동을 그쳤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하는 말이, 업방전 00:00까지 잠 좀 제워달래는데 거절했다는 겁니다. 제까짓 것들이 뭔데 한국 사람이 문을 열어 달라는 데 안 열어 주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그 뒤탈로 공장에서 만나게 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그 회사를 그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 일단 가지고 제가 엄살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서나 비스, 전철을 타울 때,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옥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비스나 전철이 만일때면 저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라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우리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큰소리로 떼드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옥하는 말은 더 잘 안답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서익숙한 말들이니까 말입니다. 저는 욕심을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나친 우월감과 편견을 버리고 어울려 사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 부천외국인노동자협회 1주년 기념 자료집 중에서 -

장애인도 외출하고 싶다

9일 오후 2시 자하철 1호선 서울역 광장에 모여든 장애인 26명이 환제어의 은빛 비커를 물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오이도 역 장애인 수직 리프트 추락 참사 대책 위원회’ 소속 장애인들이다. 지난 1월 22일 장애인 지낸 노부부가 자살한 전에 수직 리프트를 타다가 숨지고 다친 것에 항의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해 온 이들은, 이날 페미어에 몸을 맡기고 서울역에서 청랑리역까지 자하철 시위에 나섰다. 서울역 광장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개찰구로 내려가고, 또 다른 엘리베이터로 자하철 플랫폼까지 가는 동안, 그들의 이야기와

원문의 권한은 해당 저작권자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신이량 다른 사람을 쉽게 구분짓는다.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인 '차별은 단순한 '차이'에서 만들어진다. '차이'는 한 마디로 '다르다'는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결로 잘못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혜택을 못 받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 한다면 큰 문제이다.

차별이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을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하여 비난하고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는 관행이나 제도를 말한다. 이런 차별은 주로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실제적인 사례나 구체적인 행위로 판단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일반화시킨 것을 근거로 내리는 판단이 편견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떤 회사에서 여성에게 이력을 넣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회사는 '여성은 책임감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회사의 주장은 구체적인 사례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생각을 사실인 양 표현한 것이다.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일반화시킨 편견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편견 근거하여 여성의 취업 기회를 가로막은 것을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그것에 올바르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하겠다.
나라면 어떻게 느낄까?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집단의 목록을 만들어 보고 그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자신이 차별 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차별을 느끼는지를 글로 써 본다. 예를 들어 '내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장애인이라면'이라고 가정해 보자. 글의 형식은 시나 일기, 수필 등 어느 것이든 좋다. 쓴 글을 낭독하거나 모둠별로 드라마를 꾸며 연기해보자.

"절대 받아야 하는 제도"라는 말이 있다. 불완전한 제도라고 하면 월드에 꽃 장애인을 빗대서 써야 할까? 우리가 무섭고 쓰는 말 가운데 차별 받는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말들을 찾아 보자.
(2) 차별을 없애요! 인권선언으로 보는 차별

■ 이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인권선언 속에서 차별의 중요한 원인으로 여긴 '인종, 성, 세상의 자유, 정애인, 종교의 자유'에 대해 살펴 보자.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남녀가 기본적인 자유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을 저해하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이나 제한을 의미한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 -

“인종차별”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차이에 의한 구별이나 배척, 제한, 혹은 그 반대로 우월권 등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유엔 인종차별철폐조약 -

우리는 지적 자유가 인간의 빈약을 수 없는 권리 중 하나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그와 같은 자유는 그 자신의 의견, 특히 통치자의 그것과는 다른 의견을 소지하고 표현하는 그의 권리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규정된다.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박탈되면, 인간은 노예가 된다.
- 1950년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의 작가, 과학자, 교육자, 예술가들이 도입을 갖고 체택한 '자유인 선언' -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고 동반적인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 사회생활을 운전히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이 말은 장애인도 일상에서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 유엔 장애인 권리 선언 -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은 갖가지 방법으로 예배, 종교교육 및 사회선교를 통해하는 다양한 정책체계에 의해 부정되거나 제한 받고 있다. 우리는 모든 정부가 종교의 자유권을 명백히 인정하고, 그 자유권을 행정으로 육성시키고, 시민들이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게 해 줄 것을 요구한다.
- 1974년 바티칸시티에서 열린 제3차 세계주교대의 원대회에서 채택한 ‘인권과 평화에 관한 메시지’-  

차별과 인종주의적 행동은 자신과 피부색, 문화, 종교, 국적, 종교적 배경이 다르다고 하여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다. 차별에는 역사적으로 절건 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차별도 있을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인종이나 종교의 차이에서 벗어지는 감동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인류는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선언대로 ‘여러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어야겠다.
광고 만들기

최근 여러분이 일하는 광고 회사가 우리 사회에서 혼히 차별 받고 있는 어떤 집단으로부터 광고물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자. 우리 사회가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해 달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광고회사는 이제 작업을 해야 한다. 먼저 차별받는 집단을 하나 선정한 후 광고대사를 정한다. 포스터를 만들지, TV 광고물을 제작할지, 라디오 방송광고물로 할지 결정한다. 더불어 어떤 카피를 쓰아 할지 등을 결정한 후 광고를 만들고 시연해 본다. 그리고나서 어떤 광고가 가장 긍정적이며 평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담고 있는지 평가해 본다.

서울시내 지하철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붙어 있었다. 이 광고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모두 살책입니다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면 더욱 좋으며, 한 줄짜리의 몇만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권을 위한 투쟁

(1) 시민의 불복종

부당한 법을 일부러 여기는 사람은 벌을 걱정하지 않지만 신념 약속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양심의 명령에 따라 법규이므로 복종하지 않겠다는 사람, 그래서 악법이 조정하는 복지에 도전하여 사회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감옥의 형벌조차 기피의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실제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모든 행동은 '협력적'이고 정치적의 독립투사들의 모든 행동은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결로 잊어버리는 안될 것입니다. 법과 절서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러한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과 절서는 위협하게 구축된 방독제처럼 사회정화의 희생을 망을 수 없습니다. 불의는 양심이라는 빛과 연론이라는 공기 앞에 드러내 보임으로써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영향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중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떤 사람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1929-1968) 보통 사람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권운동가로서 운동을 닦아 활동한 시기도 14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단다. 그려나 그는 이 작은 일을 통해 미국의 흑백차별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거대한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그가 소리내어 의친 정의와 평등의 요구는 사후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각종 차별을 반대하는 세계의 양심에 커다란 응원으로 남아있어.

"인류의 역사는 불복종 행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유명한 사회철학자 에리히 프롬의 말이다. '시민복종'은 불의의 권력과 싸우며 모든 사람의 평등하고 존엄한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흔한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는 '시민복종'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시민불복종'은 불합리한 내용이나 목적을 담고 있거나 도덕적 원칙에 어긋나는 정부의 법과 규율 또는 명령을 공개적·고의적·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민 불복종'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며, 법률 위반 책임을 스스로 진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신의 지위나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며, 심지어 목숨을 내던지기도 한다.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보다 높고 귀한 양심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시민불복종'이다. 이런 시민의 행동이 비록 현실의 법을 어긴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옳을 때의 폭설은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 때문에 옳지 못한 행위를 하는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잘못된 정책이나 법률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하게 된다.

시민불복종은 부당한 권력이나 제도에 항거하여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 인두세
성·신분·소득 등에 관계 없이 성인이고 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된 세금

헨리 데이빗 소로는 미국의 노예제도와 백시로 전쟁에 반대하여 6년간 인두 세(人頭稅)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1846년에 투옥되었지만. 그런 체험을 통하여 그는 "부정하게 인간을 투옥하는 정부 아래에서는 감옥도 또한 의료인 사람이 있어야 할 진정한 장소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 운동은 소로와 연계되며,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 벌이던 비폭력 주의는 간디로부터 배운 것이었다고 해. 영국의 해군의 반대하여 국방성 앞에서 농성시위를 하다가 체포된 B.W.리철도 불복종운동가였지.
'시민복종'을 실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자.

“나는 헨리 데이빗 소로입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인으로 해야 합니다. 범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태어날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청구는 어떤 때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에 기초하여 나는 미국 정부가 흑인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막강한 권리를 얻으려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인두세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나의 세금을 가지고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전쟁을 행하는 정부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의 대가로 기꺼이 감옥에 갔습니다.”

“나는 인도의 간디입니다. 내가 살던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시민의 불복종은 시민이 갖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인간이 이상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난 영국 총독부가 나의 민족에게 강요한 제염금지법을 고의로 어겼습니다. 그리고 내 동족과 함께 내 손으로 직접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압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 제염금지법
영국총독부가 소금을 독점판매하고 인도인의 소금 만든기를 금지한 법. 간디는 1930년 4월에 200마이에 걸쳐 소금 향기를 하면서 행진 중에 소금을 스스로 만드는 일에 착수하였다.

“나는 로자 파커스예요. 내가 살았던 1955년 당시, 미국에선 엄격한 '흑백 분리 법'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죠.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백인이 자리를 내놓을 것을 명령했어요. 내가 흑인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나는 이를 거부했어요. 흑인도 백인처럼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나는 흑백 분리법을 어긴 죄로 즉시 체포되어야 했지요.”
“나는 마리온 윌리스 덴롭입니다. 내가 살던 1909년 당시 영국에서는 여자들이 투표할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성으로서 참정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나의 신념을 전달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감방에 몰려와 나의 어깨와 손목, 엉덩이, 무릎,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내 머리를 붙들었고, 내 입을 막지로 벌었습니다. 내 목구멍 속으로 금속 튜브를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튜브는 내 위로 들어갔고 그들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내게 죽을 막인 것일입니다. 강제급식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기까지 수백 명의 여성이 감옥에 갇히고, 나와 같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 여성참정권
시민혁명 후 국민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프랑스 1946년, 영국 1928년, 미국 1920년,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는 대부분 2차 세계대전 후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정권이 부각되었다.

함께 해보기

● 사람을 찾아서

1.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이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시민 불복종'을 실천한 사례를 조사한다.
2. 조사하려는 인물의 연보, 주요 연설문이나 글, 핵심적인 배경 사건 등을 정리한다.
3. 조별 활동을 통해 서로의 조사 영역을 분담한다.
4. 발표 형식은 자유롭게 한다.
(2) 나도 인권운동가

나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우리 반에는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코는 고립처럼 생겼고, 눈은 아주 작어서 보는지 감탄하는지 잘 구분이 안됩니다. 말도 거의 없고 차림새도 지저분합니다. 그 친구는 반 아이들 모두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점심 시간에 같이 밥을 먹는 친구도 없고, 쉬는 시간에 같이 수다를 떠는 친구도 없으며, 동·학교 간에 같이 다니는 친구도 없습니다. 나도 그 친구에게 특별히 밥을 걸거나 친하게 근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조별 숙제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평소 친하던 친구들끼리 조를 짓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홀로 있는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우리 조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꼭 그래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하교 길에 평소에 나와 단짝이던 친구가 나에게 쫓아 붙었습니다. '왜 네 멋대로 개를 꺼워 주냐? 개가 얼마나 기분 나쁘면 엄지 알아?'라고요. 나는 음지 서러워서 집에 와서 농담 읽었습니다. 엄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인권 연구반'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인권 문제에 대해 알리고 인권 신상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2학기 행사를 기획하면서 우리는 '세계인권의 날'에 대해 널리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제정일로 온 인류가 '세계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습니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글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화장실에 부착할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보면 엄청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인권문제와 해결방안을 엽서에 쓰게 하여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우리 회원들 각자가 느끼는 소음을 모아 바자회를 열 생각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동아리 친구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컴퓨터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호회는 학교에서 빌리지는 인권참여문제에 대해 서로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법에 대해 고민합니다. 나는 열심히 토론도 벌이고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행사에도 가끔 참여합니다. 요즘 토론의 주제는 학생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문제입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뿐 아니라 학생도 학교의 주인이므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점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주장과 나의 평소 학교 생활을 비교하며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의논하고 공통 행동을 계획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달에 5천원을 한 인권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가족회의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엄마, 아빠는 1만원씩을, 나는 5천원을 각각을 잡아서 함께 모아서 낸다. 우리는 기부를 하기 전에 신문을 꼼꼼히 살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후원할 단체를 정했습니다. 매달 오는 후원회의 소식지도 자세히 읽고 있고, 후원금을 내는 것 말고도 우리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인권을 첨예히 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을 사용하지 말자는 불매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운동화와 옷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제3세계에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인권에 대해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을 뿐 더러 남의 인권을 소중히 여길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인권문제를 문제삼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권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의무와 책임을 올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활 속에서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한 방법을 익히는 일이 필요하다.

첫째. 그럴기 위해서는 우선, 뭐랄이이나 분필이가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의 말도 모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나 '지역차별'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점은 발견하면서 토론할 줄 알아야 한다.

둘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차이는 받아 들이고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합의'에 기초한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셋째.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좌지우지하려 들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국내외에 존재하는 인권보장제도와 기구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인권참여에 대한 학의를 맡고 있거나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지를 직접 퍼우며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와 기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다섯째. 대중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보매체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대중매체 등에 담긴 편견·고정관념·차별 등을 가려내어 부당하게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 인권관련 기구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만들었고 국제적인 인권관련법을 만들었다. 이런 유엔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을 돕는 기구들로는 유엔인권신문, 유엔인권경찰관, 지역인권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위원회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세째. 인권에 대한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제도나 법률 바꾸거나 새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행동이 필요하다.
합해 해보기

- 그 날을 기억하자.
- 인권의 보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그 뜻을 되새기고 기념해야 할 사건이 많이 있다. 모둠별로 기념해야 할 사건을 찾아 정한다.

<table>
<thead>
<tr>
<th>3월 8일, 세계여성의 날</th>
<th>5월 1일, 세계노동절</th>
<th>11월 3일, 학생의 날</th>
</tr>
</thead>
<tbody>
<tr>
<td>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td>
<td>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td>
<td></td>
</tr>
</tbody>
</table>

① 모둠별로 정한 사건에 대해 그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조사한다.
②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에 기초하여 '모의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

**Note**

---

다시 해보기

- 이 단원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말풍선에 생각나는 말들을 적어 보시다.
다음은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다.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왜 자신이 그런 입장을 가진지는 이를 모둠에서 발표하고 토론해보자.

01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
- 나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해. 비록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인간이 다른 인간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어.
- 사형제도가 실제 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거니까 그건 너무 급한 일이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 강도가 산한 시민을 죽였다면 당연히 자신도 죽어야 하는 게 아닐까?
- 사형제도가 있어야 범죄자들이 범죄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겠지. 사회를 유지 하려면 사형제도가 있어야 해.

* 사형폐지법안
사형제 폐지는 전세계적 추세로 100여개국 이상이 이미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종교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2001년 10월 현재 사형제 폐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02 나는 누구인가? 책 만들기

자기 자신에 대한 책을 만든다. 표지에는 자기 초상화나 사진을 붙이고, 책 속에는 자신이 쓴 글, 좋아하는 글 등을 담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책을 만든다.
3 나는 고발한다

1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찾아 '나는 고발한다'라는 연설문을 작성해본다. 내가 인권침해라고 고발하는 사례에서 어떤 점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지적하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첨부한다.

2 나의 주장을 통해 나 스스로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어떤 행동을 내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3 내가 바라는 '변화'는 어떤 것인지지를 설명한다.

4 인권단체를 찾아서

1 우리 사회에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한다.

2 조사한 내용을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하여 한 둘 묶는다. 단체 이름, 연락처, 활동 목표와 활동 양식, 참여 방법을 반드시 조사 내용에 포함시킨다.

3 각 학생들이 후원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급에 비치한다.